한마음선원, 불교 발전 위해 기금 쾌척

성역화 불사에 3억, 포교기금 1억 원 전달

한마음선원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과 포교사업 등 불교발전을 위한 기금을 쾌척했다.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3억원을 전달한데 이어 포교원장 지홍 스님에게 포교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혜수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 혜룡 스님 등 한마음선원 스님들과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마음선원이 주변 정화사업 등 여러 불사 중에서도 성역화 불사까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줘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이에 혜수 스님은 "종단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불자대중들이 힘을 모아 대작불사를 원만 성취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포교원서 진행된 포교기금 전달식에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3월 15일이면 7대 포교원이 출범한지 1년이 된다. 이번 한마음선원의 기금 전달로 포교발전을 위한 불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 신행혁신과 포교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또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에게 "한마음선원이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사가 최근 새 사장 부임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벽돌 하나 하나 쌓아 탑을 이루듯 번창하길 바란다"며 "신행혁신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 이승희 기자

자승 스님 "힘든 여건 참여, 감사"
지홍 스님 "포교 참여 씨앗 될 것"
혜수 스님 "불자 모두 힘 모아야"

공휴일 명칭 '부처님오신날'로 변경 추진

종단협 2월 23일 이사회, 정부에 개정 요청
한일불교협 일본과 방학기간 청소년 교류 나서


종단협 소속 스님들이 2월 23일 열린 이사회서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2월 23일 서울 AW컨벤션센터서 '불기2561년 제53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 및 국회관련 상임위원회에 요청키로 결의했다.

종단협 측은 "불교계는 1975년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이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사용해왔고, 한글화 추세에 맞춰 명확하게 뜻이 전달되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단협은 정부가 안을 수용해 개정을 추진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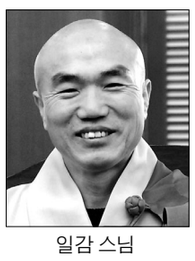
종단협은 또 서울시내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2.8㎞)와 남대문로(종로1가~숭례문 1.35㎞) 구간에 추진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유는 연등회 연등행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종단협에 따르면 종로 중앙차로 도입 시 연등행렬이 도로 양쪽으로 나뉜다. 이로 인해 시민과 외국인을 위한 관람석 설치가 불가능하고, 정류장 등 시설물에 시야가 가린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버스중앙차로제 진행 중지를 요청키로 했다. 이외에 부회장 1인을 추가하고자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을 후보로 추천받아 차기 이사회서 선출하기로 하고,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일반이사도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2016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8억2400만원, 특별회계 6억350만원으로 결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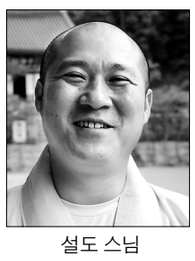
이 자리서 회장 자승 스님은 종교인구 감소와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 등 현안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스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지옥을 외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광적인 신도로만 바라봤지만 결국 종교인구조사서 불교인구 300만 명 감소라는 결과를 얻었다"며 "불교도 적극적인 포교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헌재의 판결 이후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불교계는 헌재 판결이 촛불과 태극기 민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존중하며 갈등 없도록 앞장서자"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같은 날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6월 12~15일 속리산 법주사서 '청소년 인격형성에 있어서의 사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 교류사업에 나서 종단별 학생부 소속 청소년들을 선정, 방학기간 중 일본 일련종 대본산 지상본문사에 보낼 계획이다. 이외에 조선시대 원당으로 알려진 관월당을 일본 고덕원과 다시 협의해 국내로 이전하는 문화재환수사업도 진행한다. 2016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4억8740만원, 특별회계 4500만원으로 결산됐으며, 백명숙 여성부 회장은 협회 공로패를 받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감 스님


도신 스님


설도 스님

종회의원 일감 · 도신 · 설도 스님 당선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조계종 중앙종회 직선직 보궐선거서 수덕사 도신 스님과 대흥사 설도 스님, 직능대표 일감 스님이 당선됐다.

수덕사와 대흥사는 2월 23일 각각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수덕사는 선거인단 146명 중 86명이 참여했으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이 66표를 받아 당선됐다. 前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20표를 얻었다. 대흥사는 선거인단 81명 중 72명이 참여, 영양 도갑사 주지 설도 스님이 39표를 얻어 32표를 획득한 강진 고성사 주지 범종 스님을 가까스로 따돌렸다. 무효표 1표. 직능대표 사회분야에 단독 입후보한 일감 스님은 앞서 20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수덕사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원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0년 특별구족계수계산림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과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서산시주지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대흥사 설도 스님은 범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5년 해인사서 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9년 직지사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총림 율원, 성륜사 금강선원 등에서 정진하고, 총무원 호법부 호법과장을 역임했다.

일감 스님은 원융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90년 해인사서 법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총무원 재무부장, 기획실장, 불교신문사 주간,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대학서 일어나선 안 되는 변란"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 파면
개운사 불당 도와 '우상숭배 죄'

불시넷, 손 교수 파면 철회 촉구
"종교평화 정착 위한 노력 일환"



지난해 1월 김천 개운사서 한 60대 남성이 저지른 훼불 사건에 대신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불당 재건 모금운동을 펼쳤던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파면 처분을 당했다. 개운사를 도운 행위가 '우상숭배죄'란 명목이다.

손원영 교수는 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기독대학교 측의 파면 결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손 교수는 "제가 개운사를 도우려고 모금한 행동이 학교 당국의 상식에 어긋나는 우상숭배라 운운하며 저를 파면한 행위는 학문의 전당이자 양심의 보고인 대학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종의 변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서울기독대학교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홍익인간이란 교육이념을 성실히 준수하는 진정한 대학이라면, 학교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저에 대한 파면결정을 철회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월 17일 서울기독대 이사회는 손 교수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손 교수가 개운사 불당 재건 모금운동을 펼친 것이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란 이유다.

손 교수는 지난해 1월 김천 개운사에 60대 남성 기독교 신자가 난입해 불상을 모두 훼손해 버린 사건이 발생한 후, 개인 SNS계정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후 약 260만원을 모금해 개운사에 전달하려 했으나 개운사 측의 완곡한 거절로 종교평화를 위한 대화 모임 '레페스포럼'에 전액 기부했다. 이 사건은 종교평화를 몸소 실천한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 주목받았다.

손 교수는 "저의 모금 활동에 대해 여러 언론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줬지만, 유감스럽게도 유독 우리 대학의 총장과 교단의 몇몇 지도자들만이 저의 행동을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요, 또 저의 학문 활동이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과 맞지 않는 소위 '해방신학에 해당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은 2월 22일 성명을 통해 손 교수에 대한 파면 철회를 촉구했다. 불시넷은 "손 교수의 행동은 개신교인 스스로의 내부 성찰과 반상얼 통해 종교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손 교수의 의미 있는 행동에 대한 개신교계의 재평가와 서울기독대 측의 파면결정이 철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해외특별교구 국내 설치 추진

조계종, 개정안 입법예고

침체된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해외특별교구를 설치하고, 해외에 지부를 두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2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특별교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특별교구는 국내에 설치해 해외사찰 및 해외포교 지원 종무를 총괄한다. 이에 따라 미동부해외특별교구를 지부로 변경하고, 교구는 현지에 각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부 설립조건이 교구에 비해 완화된 것이다. 기존 법안에 따라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범위에 등록한 사찰 10개 이상, 조계종 소속 승려 20명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부는 이를 절반으로 축소해 부담을 줄였다.

총무원 측은 "오래 전부터 해외특별교구 관리가 종단 행정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사찰 지원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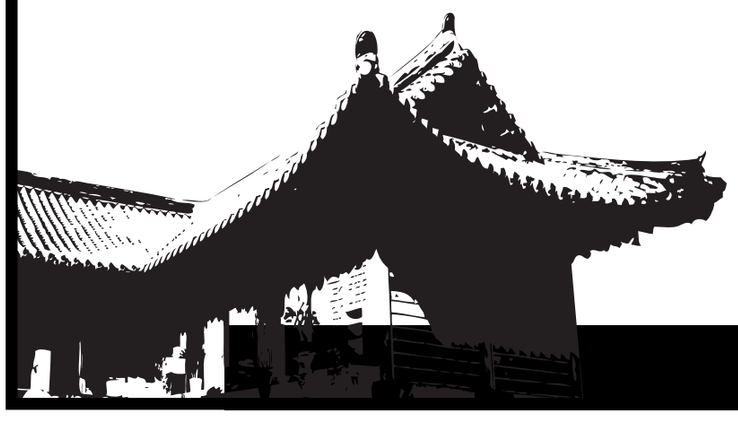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